

‘실적 주춤’ 지방銀, 오픈뱅킹 등 새 수익원 찾기 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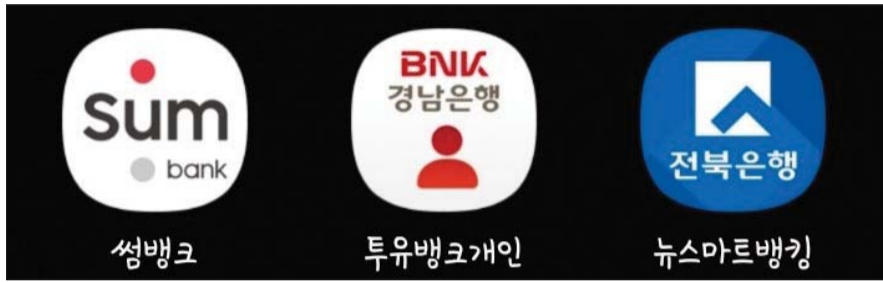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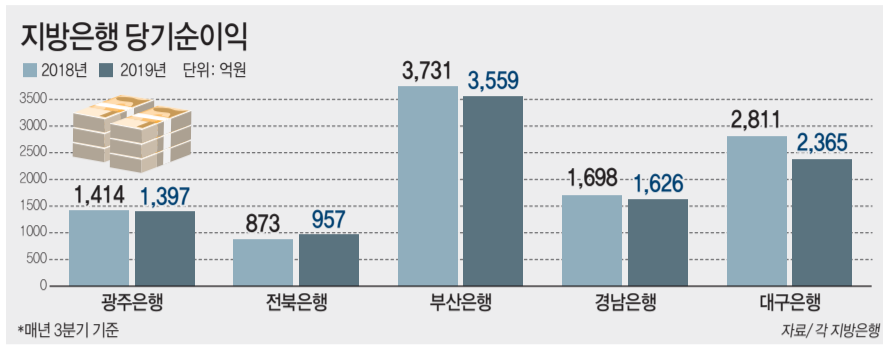
경남·광주·대구銀 등 5대 은행
예대마진·NIM 하락에 순익 감소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개선 추진
오픈뱅킹 통해 경쟁력 강화 박차

지역에 거점을 두고 영업을 확대해 온 지방은행들이 지방경제 침체와 비대면 확대 등으로 실적이 주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새 수익원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등 5대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99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1조527억원) 대비 623억원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JB금융 산하 전북은행만이 유일하게 순이익이 늘었다. 전북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95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73억원) 대비 9.6% 늘었다. 반면 광주은행은 1397억원의 순이익에 그쳐 전년(1414억원) 대비 1.2% 감소했다.

BNK금융 산하 부산은행의 순이익은 35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31억원)보다 4.61% 감소했다. 경남은행의 순이익도 1626억원으로 전년 동



부산은행 '썸뱅크' (왼쪽부터), 경남은행 '투유뱅크',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이 앱을 통해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화면 캡처

기(1698억원)대비 4.24% 감소했다.

DGB금융 산하 대구은행의 순이익은 2365억원으로 전년 동기(2811억원) 대비 15.9% 줄었다.

지방은행의 순이익 감소배경은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NIM은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만큼 자연스럽게 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경기침체로 조선·자동차·화학 등 지역 기반산업이 흔들리며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금리에 따른 시중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경제 불확실성·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자산건전성 개선에 나선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업 재무여건 개선에 부진하고 담보비율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다. 지역 기반산업의 위축에 따라 지방은행의 순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살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 감독 기준을 10%로 제시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 회수의문, 추존손실'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지난해 12.73%에서 12.95%로 0.22%포인트 올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1.43%에서 0.89%로 낮췄다.

다만 경남은행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11.79%에서 11.83%로 0.04%포인트 올렸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3%로 전년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다.

대구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1.55%로 전년 대비 0.34%포인트 감소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년(0.78%)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0.79%를 기록해 소폭 나빠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분기(0.88%) 대비 대폭 감소한 상태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오픈뱅킹'으로 새 수익원 모색

오픈뱅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은행의 규모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앱) 설계와 보안, 편의성에 따라 경쟁할 수 있고, 금리경쟁력이 뛰어난 은행 상품만이 고객유치에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픈뱅킹은 A은행 앱에 B은행, C은행 계좌 등록해놓으면 B, C은행 앱을 사용할 필요 없이 A은행 앱으로 은행의 계좌업무 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지방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는 부산은행의 '썸뱅크'와 경남은행의 '투유뱅크', 전북은행의 '뉴스마트뱅킹'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앱의 편리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수수료 면제와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등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은행 '썸뱅크'는 시범기간중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추후 금융자산 확대를 통해 지출분석 및 통계(소비패턴), 비금융자산 확대를 통해 지출과 자산 통계 리포트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투유뱅크'도 시범기간중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오픈뱅킹 적용채널을 확대한다.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은 당·타행의 계좌정보에 대한 통계정보와 지출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농협銀 “청약통장 가입하면 경품 쏜다”

3000명에 스마트오르골워터볼 제공

NH농협은행은 오는 29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총 3000명을 추첨해 농협은행 한정판으로 제작한 스마트 오르골워터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농협은행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재된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총 3000명을 추첨해 스마트 오르골워터볼을 증정한다.

당첨 고객은 12월 둘째 주에 농협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개구쟁이 스마트' 캐릭터로 디자인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선보였고,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안성판판드에 스마트와 버섯하우스,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빌리지'를 마련해 가족 및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 고객 정보보호 강화 표준정책 수립

금융권 최초 ITU-T 활용 체계화
그룹사별 특성 맞춤 리스트 도출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그룹차원의 표준화된 고객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자율적 점검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따라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 체계'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운영체계 수립에는 금융권 최초로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s Sector)를 활용해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영역을 체계화했다. ITU-T는 전기통신 분야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을 의미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금융·우리신용정보가 공동 참여하는 TFT를 진행했다. 4개의 정보보호법규(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해 각 그룹사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각 그룹사는 'PDCA(Plan-Do-Check-Act)' 기법을 활용해 그룹 표준정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PDCA기법은 수립된 그룹 정보보호 표

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별 정보보호 조직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그룹 표준정책은 지난 1월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룹 관점의 표준화된 정보보호 운영체계 수립 및 자율적 점검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운영체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외부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향후 신규로 편입될 자회사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도 이번 표준 운영체계를 적용하는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한화생명, 편의성 높은 보험관리 앱 선보

'보험월렛' 인증서 없이 보안 강화

한화생명은 새로워진 보험관리 앱(애플리케이션) '보험월렛'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보험월렛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을 강화한 6자리 간편비밀번호 등록만으로 보험계약대출,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조회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어려운 보험을 고객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를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앱에 로그인하면 한 화면에 계약현황, 보장분석, 퇴직연금, 대출

가능금액, 보험금신청까지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험월렛에서는 보험, 금융, 여행, 취미, 건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도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월평균 100건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가 수시로 업로드된다.

이 서비스는 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자산의 변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관심이 부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월렛'이라는 명칭처럼 일상에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김희주 기자 hj89@

IBK기업銀 'BOX'에 경리나라 등 5개 서비스 추가

(디지털경영지원 플랫폼)

IBK기업은행은 4일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에 5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BOX는 '기업 경영지원 전문가(Business Operation eXpert)'라는 의미로, 생산·자금·인력·재무·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새로운 서비스는 ▲정부 고용지원금 신청 지원 '인사이트' ▲전자어음 할인 ▲방송광고비 지원 ▲경리업무 지원 '경리나라' ▲소필물 통합관리 지원 '셀러허브' 등이다.



'인사이트'는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쉽게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처음 한 번만 등록하면 매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용지원금 신

청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전담인력이 없어 신청을 포기해 왔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어음 할인'에서는 보유 전자어음 조회부터 할인까지 가능하다. '방송광고' 서비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TV·라디오 광고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

'경리나라' 서비스는 경리업무 전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셀러허브' 서비스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누리 기자